

중1·고1학년 학습코칭 프로그램 추진

전북도교육청, 중하위권 학생들 학습의욕 증진 위해 교과목별 학습방법 안내

전북도교육청이 학습부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1학년과 고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5일 도교육청은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습의욕 증진을 위해 중1학년과 고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목별 학습방법을 안내하는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로를 설계하지 못하고 진학에 대한 고민으로 학습에 의욕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진로의 방향을 스스로 탐색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 및 학습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중·고등학생 각각 4시간씩 구성되어 27일 장수지역을 시작으로 도내 시군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한다.

먼저 희망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지역별 20~40명 규모로 각 교육지원청 및 인근 학교에서 토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신청한 학생들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학습유형검사를 실시하고, 진로교사는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 상담 자료를 준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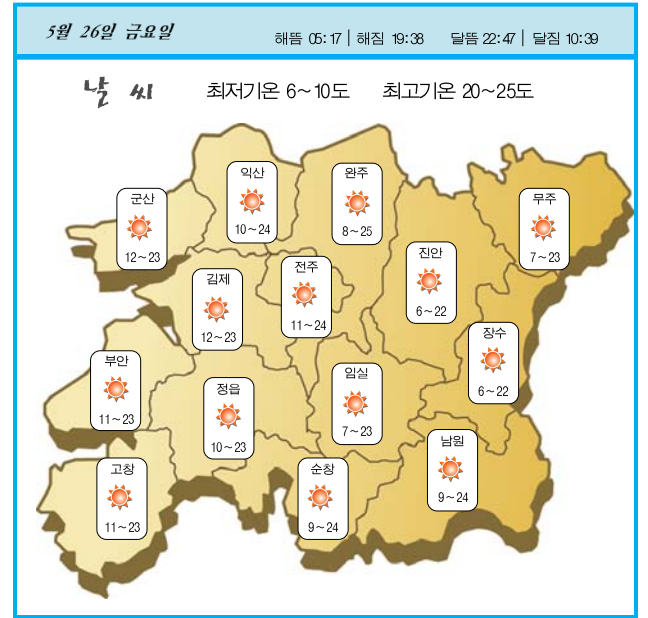


드론전투 경연대회 전주시 드론축구단은 25일 경기도 이천 육군정보학교에서 열린 드론전투경연대회에 초청돼 육군 참가 부대와 함께 드론전투 경연대회를 펼쳤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 담당 교사들은 해당 과목 학습법 특강을 실시한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습에 대한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자신만의 학습방법을 설계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중·고등학교 교사들 중 전공 교과 수업 담당자들로 구성된 40명의 강사를 꾸

려 지난 19일 사전 연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에 자신감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지역 청년들의 건강한 금융생활 경제·금융 프로그램 실시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협업 매월 넷째 주 교육 진행

전주시는 25일 영하의 거리에 위치한 청년소통공간 '비밀' (우계에서 청년들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경제·금융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역량강화와 청년소통 활성화의 일환으로 매월 넷째 주 청년경제·금융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자금 생활비, 구직자금, 주거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불법사금융피해 예방 △청년·대학생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 및 금융관련상품 안내 △미래설계 재무교육 등 청년이 건전한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와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전주에서 정주하며

또한 프로그램 교육 후에는 금융상담 연계 교육 내용 등 피드백을 통해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융복지상담소는 금융과 복지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가정경제와 재무관리를 돕고 청년맞춤형 채무조정 및 신용관리 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건전한 재무설계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본연의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민근기자

군산대 중앙도서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군산대학교도서관(관장권오신)이 새로운 공간으로 리모델링되며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군산대학교는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내외국 총장 및 주요 보직자 관계자, 학내 구성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오 픈스"를 개최하고 새롭게 정비된 중앙도서관을 선보였다.

리모델링 작업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자료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도서관 트렌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2년 8월에 신축 개관된 중앙도서관은 장서량 증가에 따른 자료실 포화 및 노후화 진행으로 이용공간이 협소하고 새로운 트렌드의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산대학교는 복합문화의 공

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해 도서관 공간을 재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시설공사에 앞서 공간 활용 및 자료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2 보존서고 모델링을 설치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앙도서관 장서 20만권에 대해 이관 작업을 하였고, 자료 집근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간 구성 및 복합문화 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컨셉을 구상 지난 3월 공사에 착공했다.

이에 따라 지하 1층에는 20만권의 도서를 보존하기 위한 모델링이 설치되었다. 1층에는 User service center, 전자자료 및 학술정보 이용 편의를 위한 학술·전자정보실을 개편했고, Community Lounge를 신설하였다.



2층과 3층에 조망형 열람테이블 및 스탠드형 열람석 설치, 4층 스테디카페, 노트북 열람석 및 학습열람을 위한 Reading Room 등 총 480석의 학습공간을 조성했다. /김민근기자

남원시, '행복한 아이들의 꽃잎 어울 한마당' 행사

남원교육지원청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26일 유아·학부모·교사·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아이들의 꽃잎 어울 한마당' 행사를 연다.

사람! 놀이꽃 향기!'라는 주제로 국악과 놀이가 어우러지는 한마당 잔치를 시작으로, 지리산 배움두레는 '지리산 아래 예술놀이 한마당'을, 남북향 배움두레는 '과하 페스티벌'을, 혼불 배움두레는 '이야기와 함께 떠나는 여행 체험 및 관람을 섬진강 배움두레와 요천강 배움두레는 '숲에 강·요천강 배움두레별 유치원들이 모여 지역사회의 어우러지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행사다. 행사는 가온 배움두레의 준항골

행사는 올해로 14회를 맞이했으며, 2015년부터 남원혁신교육특구사업으로 지리산, 혼불, 가온, 남북향, 섬진강·요천강 배움두레별 유치원들이 모여 지역사회의 어우러지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행사다. 행사는 가온 배움두레의 준항골